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위해 '전력투구'

도지사 · 정무부지사 등
각각 국회 · 기재부 방문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국힘 전북 동행의원 찾아
'전북 몫' 국비 확보 협치 요청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송석준 의원 등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동행 시군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관영 지사와 김종훈 정무부지사가 각각 국회와 기재부를 방문해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초부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와 정치권 대상으로 여야 구분 없는 전방위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북 동행 의원을 찾아 '전북몫' 국비 확보를 위한 협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 동행 의원 정책으로 국민의 힘에 대한 전북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북 동행의원을 찾아 여야 구분없는 협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7일, 김 지사는 도내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전북도 기업유치 전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진 데 이어, 정부 당국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기조에 대응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으로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을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이후 김 지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석준, 김미애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 동행 시군의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성일종 의장(순창군)에게는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협조 요청하며,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예결위 위원인 송석준 의원(군산시)과 김미애 의원(군산시)에게는 △군산-연도-어청도 항로 분리 지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 등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며, 향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예결위원으로서 전북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당 중진의원이자 교육위 위원인 서병수 의원(부안군)에게는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사업 등의 국비 확보 협조 요청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신규 3개소(전북, 부산, 제주) 지정에 필요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 및 국회 핵심인사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도 지휘부와 실국이 중앙정부, 국회를 찾아 예산확보 활동을 쉼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정 역량을 한데 모아 예산안이 최종 반영되는 그날까지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를 방문한 김종훈 정무부지사는 세종에서 기재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 핵심 관계자를 차례로 찾아 전북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현장행정 추진

폭염 · 코로나 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전북도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전북 사회경제적 혁신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빙기 설치, 쉼터 운영,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준공 시까지 코로나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산학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 교육과정 신설, 입주기업 모집 홍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현재,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공정률 80% 정도를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말 준공 이후 건물 시운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은 물론,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휴가철 대비 공중화장실 특별 점검 실시

공중 화장실 내 범죄예방 활동 · 위생 수칙 홍보 강화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여름휴가철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주요 관광지 및 교통시설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1,000여 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8월 1일부터 2주간,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확산 방지, 위생 및 청결 강화, 공중화장실 확충 등이며, 점검대상 시설은 휴게소, 교통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도내 공중화장실 1,000여 개소이다.

특히,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의심 흔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비상벨, CCTV, 경광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한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등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변기 뚜껑닫고 물 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이용객 위생 기본수칙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여름 휴가철 맞아 과일 유통 현장 행정 나서

도 농축산식품국장, 임실 산지유통센터 방문 복숭아 수급 점검 · 청년 유통 인력 건의사항 청취 등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 임실군 소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가뭄 등으로 고생했던 과수 산지유통조직을 위로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실군,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 및 산지유통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약 80명의 선별인력이 이른 아침부터 고품질 임실 복숭아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체인으로 보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신 국장은 선별되는 복숭아의 품위 및 포장, 가격 동향 등 전 과정을 꼼꼼히 살폈으며, 인력 수급, 마케팅 등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청년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도내 유통 인력의 역량 강화와 수도권 바이어 발굴을 위한 올 10월 워크숍 개최 건의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편 전라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의 고품질 선별 · 유통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농산물 할인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농가의 조직화, 농산물 상품화, 시설 현대화, GAP 확대 등 유통 부문에 총 317억원 규모로 지원하였고, 총 31개의 APC가 현재 운영 중이며, 또한 전주, 익산, 남원 3개 시 · 군에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이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에서는 '제철제맛' 기획전을,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북 여름과일 대전'을 진행 계획이다.

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여름, 산지가 유난히 무덥고 소비둔화 우려도 있지만, 우리 도는 농업 현장을 자주 찾아감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답을 찾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연장 상환

기존 2년에서 5년 상환으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값이 상승하면서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상환을 당초 2년 일시상환에서 5년상환으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당초 융자 100%, 금리 1.0%, 2년 일시 상환에서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융자 100%, 금리 1.0%, 5년상환(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으로 연장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며 기존 1.8%보다 낮은 1.0%로 지원된다. 상환조건도 5년으로 연장상환되어, 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액은 상반기 1165억원, 하반기 648억원을 지원해 올해 1,813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338억원에 비해 5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사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등을 필요한 농가에 적극 지원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2022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매일 부사장
•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양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연사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카페 디스트 • 웅변크루사 • 심리상담사
• 세계 "365 스피치 지역담니케이션", "나를 세운 별, 별, 별" "스피치 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마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 강 료 : 15만원 • 문 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마술지도사, 치매인지놀이협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